

PC-I-17. 상악동 골이식이 임플란트의 생존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0년간 후향적 연구

전예란^{1,2*}, 지숙¹, 방은경¹, 김명래^{2,3}, 강나라^{2,3}

1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치과학교실 치주과

2 이화여자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임플란트치의학과

3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치과학교실 구강악안면외과

연구 배경

상악동 골이식은 심한 함기화를 보이는 상악 구치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골의 양을 증대시키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술식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상악동 골이식을 시행한 부위에 식립한 임플란트의 장기간 생존률을 평가하고 골 이식재의 종류,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 식립 시기에 따른 생존률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연구재료 및 방법

1996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이화의대 목동병원 치과에서 상악동 골이식을 시행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161명, 391개의 임플란트 중 inclusion criteria에 따라 102명, 272개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 30, 남 72, 평균 나이 49.0 ± 9.7). 추적 기간은 12~134개월 이었으며 평균 47 ± 32 개월이었다. Inclusion criteria는 다음과 같다: (1) 최소 보철 후 1년 이상 추적 기간 (2) 상악동 골이식만 단독 시행 (3) 외측창 형성법으로 접근 (4) 골 이식재의 종류, 사용한 임플란트의 종류, 식립 시기가 명확하게 기록 (5) 수술 및 보철 치료를 한 병원에서 시행

Kaplan-Meier analysis를 사용하여 생존률을 평가하였으며 log rank (Mantel-Cox) test를 사용하여 골 이식재의 종류, 표면 처리, 식립 시기에 따른 생존률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상악동 골이식을 시행한 부위에 식립한 임플란트의 10년 누적 생존률은 90.1 %였다. 자가골만 이식한 경우, 골 대체재만 이식한 경우, 혼합 이식한 경우의 생존률은 각각 94.6 %, 100 %, 85.9 %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활면 임플란트의 생존률은 84.8 %, 거친면 임플란트의 생존률은 97.5 %로 상악동 골이식을 시행한 부위에 식립한 거친면 임플란트의 장기간 생존률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지연 식립한 경우의 생존률은 92.9 %, 동시 식립한 경우의 생존률은 86.0 %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상약동 골이식은 장기간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예측가능한 술식이다. 그러나 후향적 연구에 따른 많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더욱 조건을 제한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